

## 해외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동향

미래전략개발부 지속가능연구팀  
서대훈 선임연구원(kdb14@kdb.co.kr)

### I. 기후금융 개요

### III. 특징 및 시사점

### II. 해외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동향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로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 운송, 건물 분야에 집중 공급되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후금융 규모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을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 아닌 핵심 경영전략 중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EIB는 기후은행 로드맵을 통해 녹색금융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KfW는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 목표와 업종별 전환경로에 맞춰 자금공급 조건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NWF는 중기 경영계획을 통해 전력망, 수소, 배터리 등 주요 공급 분야를 선정하고, 시장 여건 등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방식에 있어서도 대출, 보증, 투자, 자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후기술과 같이 막대한 투자비, 긴 회수기간 및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금융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자금공급 외에도 지자체의 인프라 사업에 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책금융기관들이 기후금융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 이외에 플랫폼을 활용한 간접지원도 활성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하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후금융의 성과측정 방식과 산업별 공급방향 설정 등 해외 정책금융기관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금융 고도화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 I. 기후금융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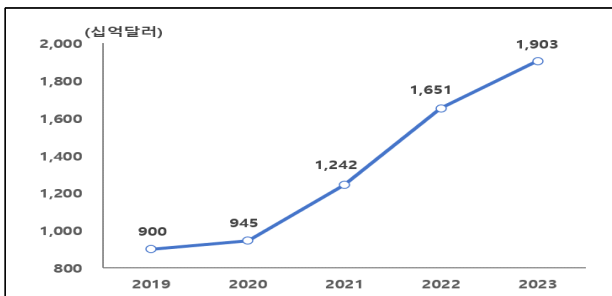
□ UNCC1)에 따르면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등의 재원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의미

- 기후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보조금, 대출, 투자 및 보증이 있으며, 정책 자금이 후순위 대출 등으로 사업위험을 낮추고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도 존재
- 기후금융의 재원은 일반채권이나 정부출자 등을 통해서 조성하지만 기후금융만을 목적으로하는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조달

□ 글로벌 기후금융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로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인 에너지, 운송, 건물 분야에 집중

- ESG가 글로벌 트렌드로 대두되었던 '20년 이후 기후금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3년 1.9조달러 달성
  - '23년 기준 기후금융 공급방식별 금액은 대출 1.1조달러(58.6%), 투자 0.7조달러(38.2%), 보조금 등 0.1조달러(3.2%)로 구성
- 기후금융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탄소 多배출 섹터2)를 중심으로 공급중
  - '23년 기준 에너지 0.8조달러(43.8%), 운송 0.5조달러(28.6%), 건물 및 인프라(15.2%) 순

<그림 1>                      **글로벌 기후금융 추세**



<표 1> '23년 기후금융 주요 공급분야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금액	비중
에너지	834	43.8
운송	545	28.6
건물 및 인프라	290	15.2
물	49	2.6
농림어업	38	2.0
폐기물	29	1.5
산업	26	1.4
기타	92	4.9
합계	1,903	100.0

자료 : CPI(2025),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25"      자료 : 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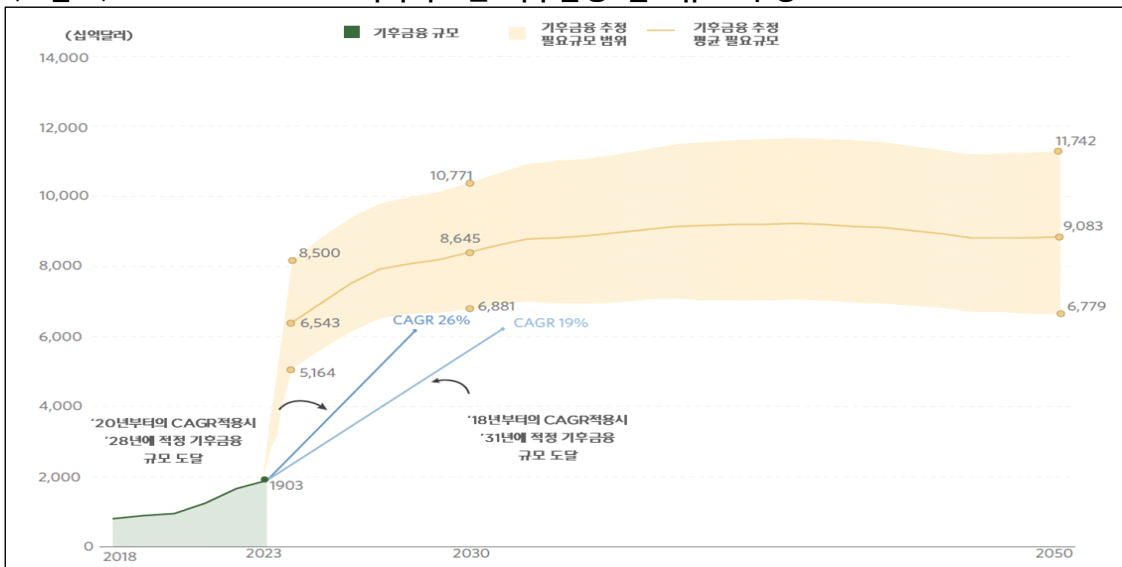
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2) World Resources Institute 기준 '23년 글로벌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전기·열 33.6%, 운송 14.3%, 제조·건설 12.2%, 건물 6.3%, 산업공정 6.2% 등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기후금융이 필요한 상황

- CPI<sup>3)</sup>에 따르면 '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24~'30년 기간동안 연평균 최소 6.3조 달러의 기후금융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기후금융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률(CAGR) 26%를 적용시 '28년이나 최소 필요 시나리오 경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이 부족한 상황

<그림 2> 시나리오별 기후금융 필요규모 추정



자료 : CPI(2025),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25"

- 전쟁 및 트럼프의 정책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정책공조 대신 각국이 각자도생을 선택함에 따라 글로벌 기후대응 동력이 약화되어 기후금융 확대도 불분명
  - 러·우전쟁, 미·이란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에너지 자립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력발전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향도 강화되는 등 기후정책 완화 기조 대두
  - 또한, 각국은 탄소 사용 비중이 높은 운송분야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장려 하였으나, 최근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전기차 전환 대신 자국기업을 지원하는 폐쇄적인 방향의 정책 도입중
  - 따라서, 기후금융 규모의 증가세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 존재

3) Climate Policy Initi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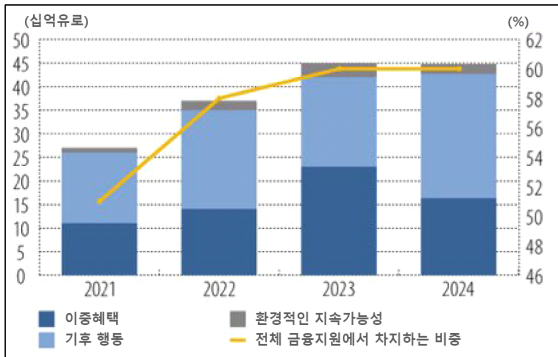
## Ⅱ. 해외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동향

### 1. EU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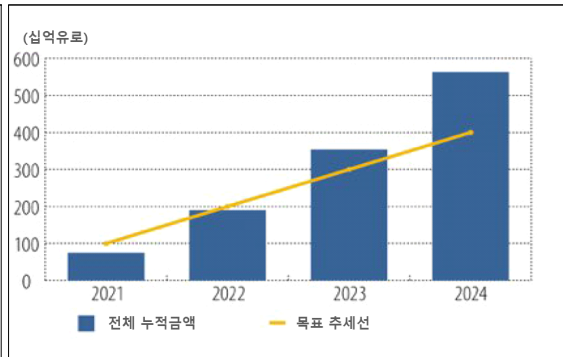
□ (현황) '20.11월 설정한 기후은행 로드맵에 따라 '24년까지 5.6천억 유로의 녹색 금융을 공급하는 등 기후금융 확대

- 전체 자금공급에서 녹색금융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24년 60%를 기록하는 등 기후금융에 대한 비중 증가
  - '25년까지 전체 자금공급에서 녹색금융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
- 녹색금융에 대한 누적 자금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5.6천억유로 달성
  - '30년까지 1조유로의 녹색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기후은행 로드맵 목표대로 순항중

〈그림 3〉 EIB의 녹색금융 금액 및 비중



〈그림 4〉 EIB의 누적 녹색금융 금액



자료 : EIB(2025), "Climate Bank Roadmap Phase 2 2026-2030"

□ (전략) '25.10월 기후은행 로드맵 2단계인 5개년('26~'30년) 계획을 발표하여, 기존에 설정한 '30년까지의 목표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분야를 수립

- EIB는 기설정된 '30년까지 녹색금융 비중 50% 이상 확대 및 누적 1조유로 자금 공급이라는 계량 목표는 유지하는 대신, 지난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은행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
  - ①경쟁력 제고, ②포용적 번영, ③안보 및 대비라는 관점에서 지원분야를 선정

- (경쟁력 제고) 에너지 집약산업 탈탄소화, 기업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순환 경제 지원 등 녹색전환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탈탄소화 지원
  - 화학, 철강, 시멘트 및 비료 등 에너지 집약산업에서 저탄소 차세대 생산기술을 개발·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가격경쟁력 확보 기여
  - 유럽 경제에 중요한 핵심 원자재를 지정하고 핵심원자재의 채굴에서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가치 사슬을 지원하고, 특히 EU순환경제법('26년 시행)에 따른 유럽내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사업에 적극 투자
  - 클린테크 기업들에게 보증 프로그램(CleanTech guarantee facility)이나 윈스톱 플랫폼(TechEU) 등을 통해 클린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27년까지 단계별로 7백억유로의 혁신자금을 제공하여 최대 2.5천억유로의 투자 유도
  
- (포용적 번영)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전환 지원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화석연료 의존지역에 자금공급
  - 중소기업 및 저소득 가구가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에 접근가능하도록 지역 은행과 협력하여 에너지효율화 목적의 주택 개보수 대출 및 전기차나 히트 펌프와 같은 제품 임대 등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대출도 고려
  
- (안보 및 대비)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홍수, 가뭄 등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재건 및 개선
  - 물 분야 중점 지원 프로그램(Water Resilience Programme) 등을 통해 EU Water Resilience Strategy 정책을 금융차원에서 지원하며,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해 목표를 이전 기간('21~'25년) 대비 2배로 늘린 300억 유로로 확대
  -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취하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홍수 감지기, 비상전력 공급장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출 등 제공
  
- (공급방식) EIB는 자체 공급 프로그램과 자회사인 EIF<sup>4)</sup>를 활용하여 기후금융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

4) European Investment Fund

- EIB는 주로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대규모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직접 자금을 제공
  - 대출, 투자, 보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금을 공급 하나, 그룹내 업무조정 에 따라 '21년부터 기후관련 투자의 경우 주로 자회사인 EIF를 활용
  - 또한, 단순 자금공급을 넘어 플랫폼 구축으로 민간 금융기관에게 적격 투자처 정보 등을 제공

**<표 2> EIB의 주요 기후금융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SME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효율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출, 투자 등 '27년까지 1.8백억유로 제공 예정</li> <li>▪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등에 공동지원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거나 기후금융 적격성 등을 심사해주는 Green Gateway 플랫폼도 활용</li> </ul>
Tech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기업이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윈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금융 플랫폼으로, 클린테크 기업에는 '27년까지 7백억유로의 대출, 투자, 보증을 통한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li> </ul>
Water Resilience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가 기후변화로 물을 산업경쟁력 및 생태계의 핵심 리스크로 지정함에 따라 물 관련 인프라 및 관련 기술투자에 '27년까지 1.5백억유로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li> </ul>

자료 : EIB 홈페이지

- 중소·중견기업에 위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EIF를 활용해서도 다음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금융을 향후 5년간 강화해나갈 계획
  - 기후, 환경, 사회적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에 출자
  -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를 통해 청정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EU기업에 지분투자
  - 에너지효율 개선,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 영위기업 앞 대출 제공

**<표 3> EIF의 주요 기후금융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EIB Infrastructure and Climate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에너지, 친환경교통, 환경 등의 테마에 투자하는 기후 및 인프라 펀드에 출자</li> </ul>
Cleantech Co-Investment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금융기관이 EIF의 기후행동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할 때 EIF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프로그램</li> </ul>

자료 : EIB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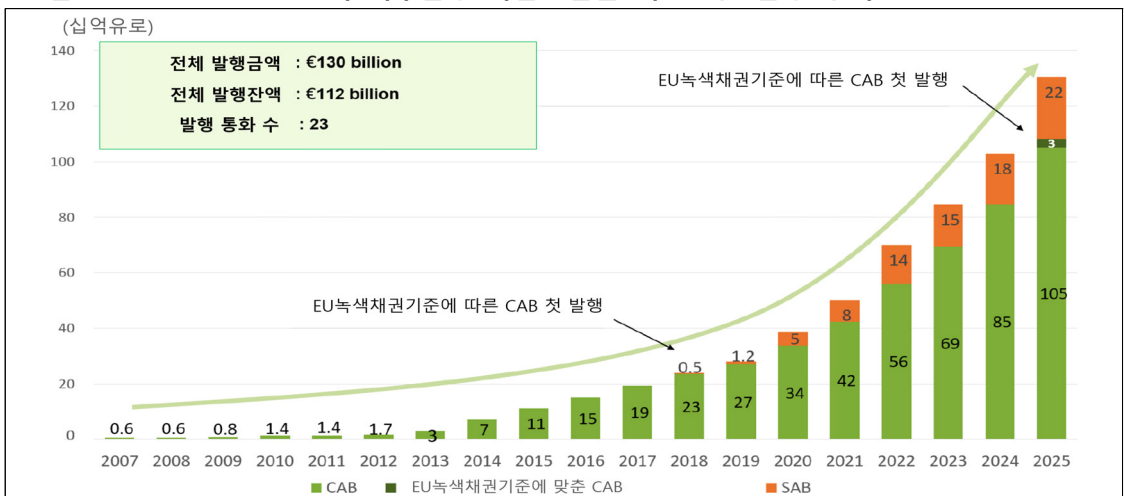
**<참고 1> '25년 EIB의 기후금융 주요 사례**

- 이베리아반도-프랑스 전력망 연결 사업
  - 전력망 연결 사업자 앞 16억유로의 대출을 제공하여, 프랑스와 스페인간 저탄소 전력교환 2배 증가 가능
- 폴란드 해상풍력 설치사업
  - EIB가 해상풍력에 20억유로를 투자함에 따라, '30년까지 폴란드의 전기 생산량의 1/10 및 전체 재생에너지의 1/3을 해상풍력으로 제공
- 이탈리아 해저 전력케이블 연결 사업
  - 이탈리아 에너지 시스템 프로젝트에 7.5억유로의 대출을 제공하여, 이탈리아 중부지역내 재생에너지를 연결
- 독일 新연료 개발사업 지원
  - 이산화탄소를 합성 탄화수소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의 건설 자금 대출 0.4억유로 제공

자료 : EIB(2026), "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 Activity Report 2025"

- 기후금융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후금융 확대를 위해 연간 발행규모도 증가 추세
  - EIB의 경우 녹색채권은 기후인식채권(Climate Awareness Bond)으로, 지속가능채권은 지속가능성인식채권(Sustainability Awareness Bond)이라는 브랜드로 발행

**<그림 5> EIB의 기후금융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추세**



자료 : EIB(2025), "Climate Bank Roadmap Phase 2 2026-2030"

## 2. 독일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현황) '25년 기준 전체 신규 자금공급 약정액 969억유로 가운데 51%인 494억 유로가 기후대응 및 환경관련 사업에 공급되는 등 기후금융 비중·금액 확대

- KfW는 기후대응 관련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년 신규 약정액 494억유로(51%)를 달성하였으며, '24년 347억유로(44%) 대비 147억유로 증가
- '25년 기준 정부를 대신하여 운영중인 에너지 효율 건축물 연방프로그램(128억유로) 및 기후친화 건물 건설 프로그램(67억유로)과 같은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분야가 가장 큰 비중 차지

〈표 4〉 '24~'25년 KfW의 주요 기후·환경 프로그램 신규 약정금액

(단위 : 십억유로)

구 분	신규 약정금액	
	'25년	'24년
에너지 효율 건축물 연방프로그램	12.8	10.0
재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9.2	0.0
기후친화 건물(주거용, 비주거용) 건설 프로그램	6.7	6.8
기업의 기후행동 캠페인	1.9	1.6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대출 프로그램	1.1	0.3

자료 : KfW(2026), "Financial Report 2025"

- 건물분야 외에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도 증가하였으며, KfW의 '25년 자금공급으로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11,000MW 설치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해상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배터리,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수소설비 등의 신규 건설이나 현대화 지원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는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 재생에너지 설비 자금공급 비중은 유럽 67.1%, 아시아 25.2%, 남미 2.7%, 아프리카 2.6%, 북미 2.5% 순<sup>5)</sup>

5) KfW(2026), "KfW Impact Insights Financial Year 2025"

□ (전략) 기후·환경과 디지털·혁신을 중심 축으로 전환하는 전략에 따라, 중기실행 목표인 **strategic objectives 2030**을 통해 기후·환경 지원을 위한 관리목표 설정

- KfW는 strategic objective 2030에 따라 ❶ 금융활동을 SDG<sup>6)</sup>에 맵핑을 하고, ❷ 파리협정인 1.5도 온도상승 억제경로에 부합하게 하며, ❸ 신규 자금공급액의 38% 이상을 기후·환경분야에 공급하는 목표 수립
  - 신규 자금공급 사업에 대해서 SDG 맵핑을 하여 Annual report 등에 공시하며, '25년 기준 신규 자금공급 사업의 SDG 맵핑 비중은 97.1% 기록
  - 또한, 금융지원을 파리협정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파리협정에 연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
  - 전체 신규 약정액 대비 기후·환경 관련 약정액이 '24년 44%, '25년 51%를 기록하는 등 신규 자금공급액 38% 이상을 기후·환경분야에 공급하는 목표 충족중
- 특히, 파리협정에 따른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고배출 업종인 자동차, 철강, 건물, 발전, 항공, 해운, 석유·가스 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 자동차 업종의 경우 온실가스 중립목표에 기여하는 기술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은 확대하고, 과도기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공급 비중을 축소

〈표 5〉 파리협정에 연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예시(자동차)

구 분	적용 기간			
	'23.1.1 ~ '24.12.31	'25.1.1 ~ '29.12.31	'30.1.1 ~ '34.12.31	'35.1.1 ~
전환적 추진기술 <sup>주)</sup> 장려	신규약정 중 전환적 추진기술 비중이 최소 83% 이상	신규약정 중 전환적 추진기술 비중이 최소 93% 이상	신규약정 중 전환적 추진기술 비중이 최소 95% 이상	신규약정 중 전환적 추진기술 비중 100%
과도기적 기술 제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차 및 그 공급업체에 대한 신규약정 비중은 최대 17% 제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차 및 그 공급업체에 대한 신규약정 비중은 최대 7% 제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차 및 그 공급업체에 대한 신규약정 비중은 최대 5% 제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차 및 그 공급업체에 대한 신규약정 불가

주 : 배터리전기차(BEV), 연료전지전기차(FCEV)의 생산설비 및 관련인프라, 승용차 배터리 생산, 충전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 등 온실가스 중립목표에 기여하는 기술

자료 : KfW(2024), "Paris-aligned sector guidelines of KfW Group"

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엔총회에서 '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된 17가지 목표

□ (공급방식) 주로 KfW가 관련 기후사업에 대출을 공급하고, 자회사인 KfW Capital이 VC펀드에 출자하는 등 투자업무 수행

- 기후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 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의 보조금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시 기후 프로젝트에 부족한 유동성을 보강하는 역할도 수행
  - 국가의 수소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같이 초기 운영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에 운영수입 부족분을 대비한 신용한도를 제공하는 등 유동성 제공

〈표 6〉 KfW의 주요 기후금융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Federal Funding for Efficient Buildings(BE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기업 등 주거 및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개보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보조금 및 대출 제공</li> <li>▪ 단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KfW가 연방정부 대신 창구역할을 통해 지급하고, 대출의 경우 KfW가 정책대출을 제공하고 일부 이자나 원금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조금 제공</li> </ul>
Renewable Energy -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가스,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프로젝트 당 150백만유로 한도로 대출</li> </ul>
KfW Geothermal Energy Promotional Lo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지자체 등 도시 및 산업에 열공급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당 25백만유로 한도로 대출</li> </ul>

자료 : KfW 홈페이지

- 기후관련 투자의 경우에는 주로 자회사 KfW Capital를 통해서 수행
  - 기후테크 및 기후관련 사업에 대해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최근 관련 기업 앞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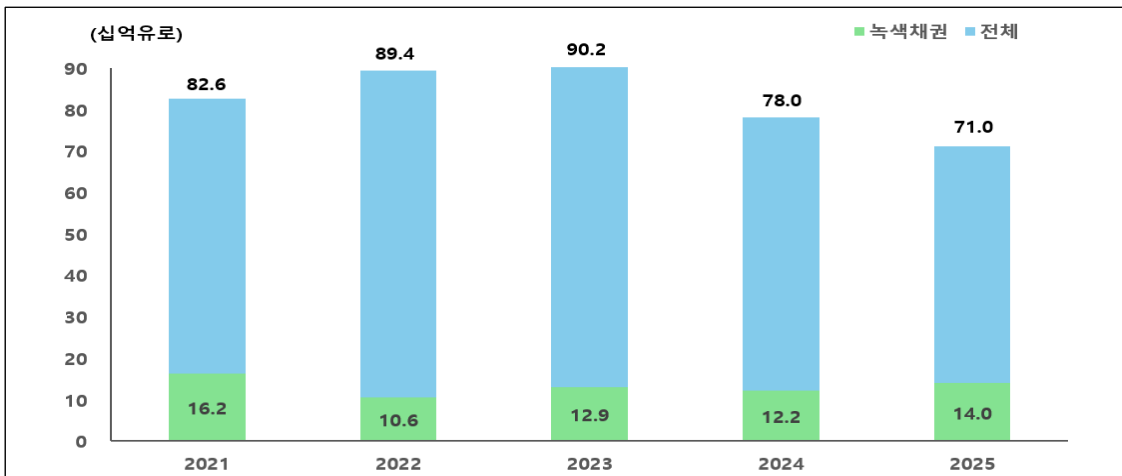
〈표 7〉 KfW Capital의 주요 기후금융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Green Transition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기술 및 기후관련 분야에 집중하는 VC펀드에 1억유로 규모로 출자</li> </ul>
Impact Fac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가능한 사회·환경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 펀드에 2억유로 규모로 출자</li> </ul>

자료 : KfW 홈페이지

- 기후금융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5년 기준 녹색채권 140억유로를 발행
  - '25년 녹색채권 비중은 자본시장 조달금액 710억유로의 19.7% 차지
  - '25년 녹색채권을 통한 자금사용은 그린빌딩 71.8%, 재생에너지 16.8%, 기후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7.6%, 청정운송 3.0%, 기타 0.8% 순<sup>7)</sup>
  - KfW의 '26년 자본시장 조달금액은 750~800억유로로 예상되며, 녹색채권도 발행을 늘려 15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6> KfW의 기후금융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추세



자료 : KfW(2026), "Investor 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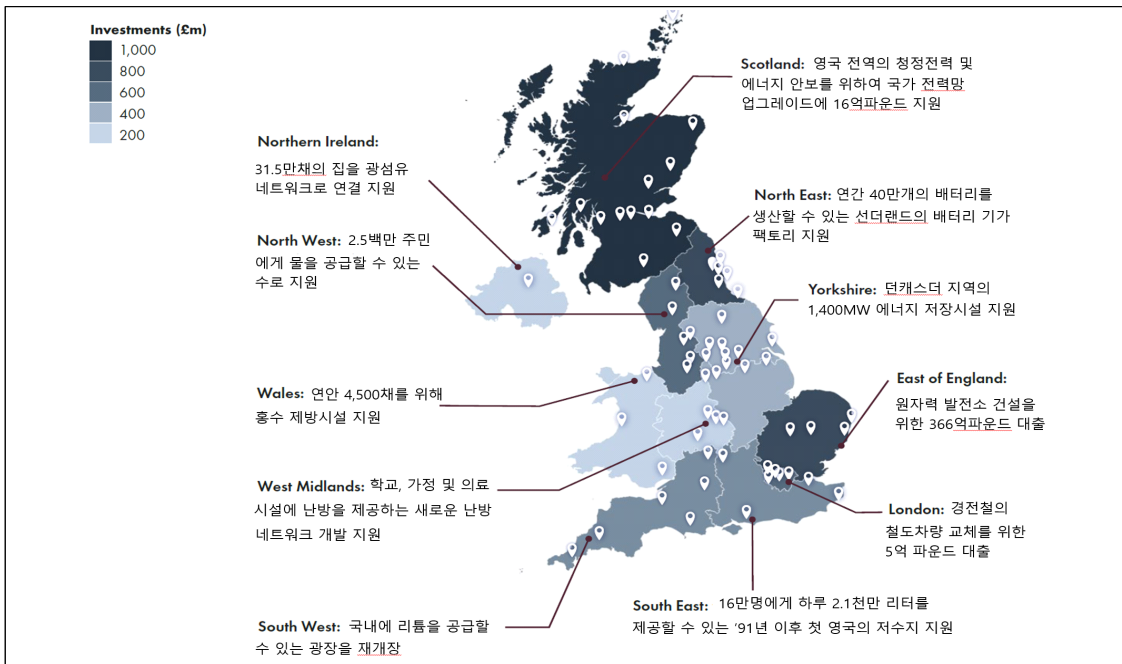
7) KfW(2026), "Green Bonds - Made by KfW"

### 3. 영국 NWF (National Wealth Fund)

□ (현황) '25.3월 기준 전체 자금공급 22.8억파운드 가운데 78.5%인 17.9억파운드를 기후대응 관련 사업에 공급하는 등 기후금융 확대

- NWF는 전년 13.8억파운드 대비 29.6% 증가한 17.9억파운드를 기후금융으로 집행8)
  - '25.3월 기준 기후금융 공급액 중 청정에너지가 15.7억파운드(87.6%)로 대부분을 차지
  - 이를 통해 3.1GW의 재생에너지 및 3.8GW의 에너지 저장용량 확보, 15.8GWh의 배터리 생산 공장, 3.3만개의 전기차 충전소 등을 지원
- '21년 설립 후 5년간 영국 전역에 70여건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사업 26개, 청정운송 9개, 기타 환경분야 7개 등 기후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용중

<그림 7> NWF의 지역별 투자금액 및 포트폴리오



자료 : National Wealth Fund(2026), "Unlocking the UK's Future our Five-Year Strategic Plan to 30/31"

8) National Wealth Fund(2025),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4-2025"

**□ (전략) '26년 향후 5개년 전략목표 중의 하나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 기회 발굴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 분야에 집중 자금공급**

- NWF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기회 창출, 영국내 지역기반 투자 가속화, 국가의 전략적 역량강화라는 3대 전략목표를 설정
  - 이를 통해 5개년간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1천억파운드의 자금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5억톤의 CO<sub>2</sub> 감축 및 2십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청정에너지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들을 분석하여 주요 부문으로 25개 부문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자금 공급 방향을 계획
  - 25개 부문 중에서도 중점 공급대상인 10개 분야 대부분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야이며, 그중 핵심 5개<sup>9)</sup> 분야에는 5개년간 58억파운드를 공급할 예정
  - 중점 공급분야 외에도 중점 공급분야와 연계되거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혁신산업 등 기타 분야 15개를 설정

**<표 8> NWF의 주요 공급부문**

구 분	공급 분야
중점 공급분야 (10)	전력망, CCUS, 에너지 저장, 수소, 그린스틸, 원자력, 배터리 및 전기차 공급망, 항만, 교통 인프라, 지역기반 재생 프로젝트
기타 혁신분야 (9)	AI, 반도체, 생명과학, 양자기술, 중요 광물, 항공우주 공급망, 방산, 첨단 소재, 지속가능연료
기타 핵심 인프라 (6)	태양광, 해상풍력, 수자원, 전기차 충전, 열 네트워크, 건물의 성능 개보수

자료 : National Wealth Fund(2026), "Unlocking the UK's Future our Five-Year Strategic Plan to 30/31"

**<참고 2> 중점부문의 선정과 자금공급 방향 설명 예시(전력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상 및 해상전력망에 '35년까지 580억 파운드 규모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년까지 현재대비 전력수요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리적으로 분산된 재생 에너지원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li> </ul> </li> <li>▪ (지원방식) NWF는 필수 인프라인 전력망에 보다 다양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대출이나 보증 형식으로 공급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전력망은 자금공급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급 방식 및 규모 등을 계획해 나갈 예정</li> </ul> </li> </ul>
--

자료 : National Wealth Fund(2026), "Unlocking the UK's Future our Five-Year Strategic Plan to 30/31"

9) 수소, 그린스틸, 배터리 및 전기차 공급망, 항만, CCUS

- (공급방식) 주로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을 검토하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대출, 보증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
  - 기후대응 및 지역경제 등 관련 프로젝트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규격화된 금융 프로그램 대신 프로젝트별로 사업성 검토 후 자금을 공급
  - 대규모 프로젝트나 지원기업을 선별하여 238억파운드 한도로 대출, 보증 및 투자 등 맞춤형 금융 공급
    - 다만, 공장 신축 등 인프라 금융에 특화되어 운영자금 대출 등은 미취급
    - 투자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펀드 출자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관련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

〈표 9〉 NWF의 기후금융 주요 사례



Highview Power	Cornish Metals	AESC gigafac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상업규모의 액화공기 에너지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1.7억파운드의 대출 및 투자</li> <li>▪ 300MWh 규모의 에너지 저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석광산 운영사에 2.9백만 파운드의 지분투자</li> <li>▪ 에너지 전환 및 청정기술에 필요한 전략광물 공급망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가팩토리 공장건설에 2.7억 파운드의 보증</li> <li>▪ 매년 1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li> </ul>
		

자료 : National Wealth Fund(2025), "Financing the Future"

- 또한, NWF는 지역프로젝트 엑셀러레이터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총 40억파운드 한도로 대출 및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 앞 자문서비스를 통해 프로젝트가 투자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금융구조를 구조화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영국 국채금리 +40bp)도 공급

- '25년까지 지자체 앞 8건의 대출(9.5억파운드)을 공급하였으며, 70여건의 자문 서비스도 제공

〈표 10〉 NWF의 주요 지자체 지원사례

West Suffolk – Net Zero Fund	Solihull Council - Low carbon energy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넷제로 펀드 조성을 위해 17백만파운드 대출을 제공</li> <li>▪ 5백만파운드 미만의 지역기업의 지붕형 태양광 패널 설치, 에너지효율성 개선산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 열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9.6백만파운드의 저리대출을 제공</li> <li>▪ 도심 건물에 저탄소 전기 및 난방 공급</li> </ul>
	

자료 : National Wealth Fund(2026),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4-2025"

- NWF는 기후금융을 위해서 별도의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은 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정부의 지분출자 및 차입으로 재원 확보
  - '25.3월 기준 정부로부터의 출자(2.2억파운드) 및 차입(10.7억파운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기관 설립초기인 만큼 운영비용(0.6억파운드)은 별도로 보조 받음

## Ⅲ. 특징 및 시사점

- 기후금융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개별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핵심 경영 전략으로 정착하였으며, 자금공급 규모도 확대중
  - 정책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을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 경영전략의 한 축으로 설정
    - EIB는 기후은행 로드맵 2단계를 통해 '30년까지 1조유로 자금공급이라는 계량 목표를 유지하고,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
    - KfW는 strategic objective 2030을 통해 신규 자금공급의 38% 이상을 기후·환경분야에 할당
    - NWF는 5개년 전략계획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망, 재생에너지 등을 중점 공급분야로 선정
  - 이러한 기후금융 확대 기조는 국가의 탄소중립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의 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
    - 공급분야에 있어서도 단순히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확대를 넘어, 전략광물, 전력망 등 관련 공급망 전반으로 기후금융의 외연을 확장
- 기후금융 전략상 중점 공급분야를 선별하고 자금공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경우도 존재
  - NWF의 경우 전략목표인 경제성장과 청정에너지 확대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25개 산업 부문을 선정하고, 정책적 중요도 등에 따라 중점 공급분야 및 기타 분야를 구분
    - 특히, 선정한 분야별로 시장여건을 분석하여 민간금융만으로 충분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이유와 정책금융의 공급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후금융을 단순히 금액이나 비중으로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산업별 전환 경로와 시장상황을 파악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별 지원방향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등 기후금융 전략을 고도화

**□ 기후금융 공급을 위해 대출, 투자 및 보증 등 다각적인 방식을 활용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

- 정책금융기관들은 프로젝트의 위험도, 기업의 성장단계, 민간의 참여 정도 등에 따라 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펀드출자, 지분투자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
  - EIB, KfW의 경우 재생에너지,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의 프로젝트에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하고 자회사를 활용하여 펀드에 출자하거나 지분투자 수행
- 또한, 직접적인 자금공급 이외에도 원스톱 금융 플랫폼이나 금융구조화 자문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
  - EIB는 TechEU 플랫폼을 운영함에 따라 수요기업이 EIB 금융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도 적격 투자처 정보 등을 확인 가능
  - NWF는 지자체가 인프라 사업추진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형태로 금융구조화하는 자문을 다수 수행
- 정책금융기관은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기후금융 시장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후기술과 같이 초기 투자비가 클 뿐만 아니라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불확실한 경우 민간금융만으로는 시장조성이 어려운 경우 존재
  - 이에 EIF와 같이 공동투자 프로그램으로 민간금융과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KfW Capital처럼 기후기술 펀드에 출자하여, 민간 벤처시장에 기후기술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시장을 조성

**□ 또한, 정책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중**

- 정책금융기관들은 Impact Report 작성을 통해 단순히 기후금융 등 정책금융을 공급했다는 규모차원의 접근을 넘어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설명
  - NWF는 기후금융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했는지와 자금공급 규모당 탄소 감축량 등을 계량화
  - EIB는 탄소 감축량 뿐만 아니라 700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15,500GWh의 재생에너지 확보 등을 설명

- 재무적 수익 외에도 자금공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정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에 대한 당위성 부각
  - 자금공급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기후금융에 있어서 정책금융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기후금융 사업의 정보 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민간금융의 참여 확대 유도에도 도움
  - 또한, 성과보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결과를 전략 방향에도 반영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의 확대·축소 등을 결정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기후금융의 양적·질적 확대 추진중**

- 해외 정책금융기관들처럼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들도 기후금융의 확대 뿐만 아니라 관련 플랫폼을 활용한 간접지원 등도 활성화
  -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10년간('26~'35년) 총 790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확대하여 공급해 나갈 예정
  - 산업은행은 기후금융 공급 외에도 벤처투자 플랫폼인 넥스트라운드를 활용한 기후테크 라운드 개최 등을 통해 기후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중
  - 신용정보원이 기후금융 플랫폼을 구축('26년)할 계획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들이 기후금융 기업정보 등을 공유하여 기후금융을 공급할 예정
  - 다만, 기후금융 성과측정을 탄소감축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측면에서 고려하는 등 다변화하거나 기후금융을 위한 산업별 공급방향 설정 등 전략의 고도화 전략은 정책금융기관들이 고려해 볼 필요

## 참고문헌

### [국문자료]

금융위원회(2026),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영문자료]

Climate Policy Initiative, <https://www.climatepolicyinitiative.org>

\_\_\_\_\_ (2025),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25”

European Investment Bank, <https://eib.org>

\_\_\_\_\_ (2021), “The EIB Group Operational Plan 2021”

\_\_\_\_\_ (2025), “CLIMATE BANK ROADMAP PHASE 2 2026-2030”

\_\_\_\_\_ (2025), “EIB Global Impact Report 2024/2025”

\_\_\_\_\_ (2026), “2025 Activity Report”

KfW, <https://www.kfw.de>

\_\_\_\_\_ (2024), “Paris-aligned sector guidelines of KfW Group”

\_\_\_\_\_ (2025), “KfW Group Sustainability Programme 2025”

\_\_\_\_\_ (2025), “Supplementary information on KfW Group’s sustainability commitment 2024”

\_\_\_\_\_ (2026), “Financial Report 2025”

\_\_\_\_\_ (2026), “Green Bonds - Made by KfW”

\_\_\_\_\_ (2026), “Investor presentation”

\_\_\_\_\_ (2026), “KfW Impact Insights Financial Year 2025”

National Wealth Fund, <https://www.nationalwealthfund.org.uk>

\_\_\_\_\_ (2025),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4-2025”

\_\_\_\_\_ (2025), “Financing the Future”

\_\_\_\_\_ (2025), “From Feasibility to Finance”

\_\_\_\_\_ (2025), “National Wealth Fund Impact Report 2025”

\_\_\_\_\_ (2026), “Unlocking the UK’s Future our Five-Year Strategic Plan to 30/3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https://unfccc.int>